



즉시 배포용: 3/12/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농지 평가액 상한의 첫 해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하다

지난 해 농장주들이 농지 평가로 1,100만 달러 적게 지급하였다

업계가 재산세 풍토를 성장에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주지사의 활동을 칭찬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농지 평가액 상한의 결과로 지난 해 뉴욕주 농장주들이 농지 재산세로 1,100만 달러 적게 지급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농지 평가액이 증가하더라도 농장주들에게 연간 2%에 지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재산세 상한과 결부하여 뉴욕 농장주들은 현재 보다 예측 가능한 재산세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으로 뉴욕주 농장들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늘릴 수 있는 스마트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지 평가액의 과감한 조정을 통해 농장주들을 보호하는 일은 뉴욕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농업계가 계속 번성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 증가에 대한 규제로 가장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자급자족하고 가족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뉴욕주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우리 농장주들이 힘들게 번 수익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의미있는 구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연간 평가 증가액에 10%의 상한이 있었지만 Cuomo 주지사가 평가액 감면 정책을 수행하기 전 지난 7년 동안 농지에 대한 기준평가액은 거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세금및재정국은 2015년에는 2% 상한으로 뉴욕 농장주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 당선된 Kenneth Adams 세금및재정국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지 평가액 상한은 뉴욕에서 지역 및 주 경제에 중요한 농업계를 지원해줍니다. Cuomo 주지사의 농지 평가액 및 재산세 상한은 뉴욕의 농장주들과 주택보유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계 지원을 받는 이 새로운 법은 **Cuomo** 주지사가 뉴욕의 농업계와 함께 성공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활동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우리 주는 수많은 세계적 수준의 농산물 생산자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이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농장주도 오랫동안 활동해오면서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농업계와 주정부 사이의 관계가 좋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Patty Ritchie 상원 농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한 토지세는 농장주들이 직면한 가장 큰 비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농장주들이 농사에 성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장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가능성을 낮추어, 그 결과 가족 농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은 농장주들에게 보다 큰 확실성을 제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비용을 규제하도록 하였고 가족 농업과 뉴욕의 선도적인 업종의 미래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보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의회 농업위원회 의장인 **Bill Magee** 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2% 농지 평가액 상한으로 농지 특히 도시 지역 주변에 붙는 재산세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상한이 있기 전 농장주들은 주변 농지가 증축되면서 세금고지서에 지속 불가능한 인상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금고지서의 세액이 안정되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농지도 푸르게 가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 농업사무소(**New York Farm Bureau**)의 **Dean Norton**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지 평가액 상한은 지가 상승으로 세금고지서의 세액이 치솟는 것을 목격한 우리 위원들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한 금액은 농장에 재투자하여 업스테이트와 롱아일랜드의 전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 농업에 재투자하고 이처럼 큰 절약 성과를 이뤄내는 데 함께 협력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Genesee 카운티의 낙농업자인 **Jeff Po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농장 운영은 매우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발표는 매우 의미가 남다릅니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농장의 다른 곳에 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농장이 생산을 유지하고 농지를 구매하려 하는 차세대 농장주들을 지원하려면 이와 같은 사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야채 농사를 짓고 있는 **Robert Nola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농지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극심한 개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은 농지 평가액을 통제하면서 농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세율 인상도 늦추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농장주들이 계속 농지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신선한 로컬 푸드를 생산하도록 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재산세 억제를 임기 중 최대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고, 뉴욕의 첫 번째 재산세 상한은 모든 뉴욕주민이 보다 더 감당할 수 있는 재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2000년과 2011년 사이에 뉴욕의 재산세는 거의 두 배로 인상되었습니다. 2011년 주지사가 도입한 재산세 상한의 결과, 지난 3년 동안 뉴욕의 재산세는 평균 2.2% 인상으로 묶여있는데, 이는 이전 10년 동안의 5.3% 인상율에서 거의 60% 감소된 수치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